

##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지방지배

2017. 9. 7.

이한상 \*

1. 신라적인 고고자료의 등장
2. 신라양식 물품의 제작과 공유
3. 신라양식 물품 공유의 배경

### 1. 신라적인 고고자료의 등장

서기 4세기에 이르면 비로소 신라의 실체가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된다. 무덤의 형태에서 신라적인 모습을 찾으려 할 때 주목되는 예가 경주 불국사역 부근의 구정동 산 위에 위치한 목곽묘이다. 이러한 유형의 무덤은 구정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죽동리·구어리를 비롯하여 포항의 옥성리, 울산의 중산리와 다운동, 경산의 임당동 등 구 진한지역 각지에서 공통되는 모습을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이 묘제가 분포하는 울산, 포항, 경산은 모두 경주와 지근거리에 있고 경주의 영향이 일찍부터 미친 곳이다.

신라는 4세기 이래의 내적발전이 더해져 고구려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5세기대 초반이 되면 대외적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한다. 그 후 5세기 중엽부터는 고구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으며,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문경의 고모산성처럼 군사적인 요충지에 성을 쌓고 지방민을 각종 노역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동원하면서 6세기대 대외팽창의 기초를 다져 나간다.

이 시기 신라의 모든 영토 안에서는 경주의 공방에서 제작한 신라토기와 함께 그것을 모방하여 만든 신라양식토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지방을 통치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되거나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수장층은 경주의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금동관이나 금제 이식, 은제 대금구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경주 시내에 황남대총 남분이 축조되던 5세기 중엽 경이 되면 낙동강 이동의 모든 지역, 낙동강 이서의 성주와 선산, 안동·상주를 비롯한 경북 내륙지방, 강릉·삼척 등 동해안이 신라의 영토로 확실히 편입된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에 접한 변경지역의 경우, 시기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었다.

이 시기의 무덤은 경주와 지방 사이에 구조상의 차이가 있다. 경주의 왕경인은 배타

\*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역임.

- 주요 논저 : 『황금의 나라 신라』(2004, 김영사),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2009, 서경문화사), 『삼국시대 장식대도문화 연구』(2016, 서경문화사)



도1.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주요 교통로 및 고총군 분포(신라사대계 자료집3권, 12쪽)

적인 자신들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특히 육안상 위압감을 주는 큰 무덤을 만들었고 장례의식도 성대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화려한 금제 장식품을 함께 끼묻었다. 특히 왕족의 경우 머리에는 금관, 귀를 비롯한 신체의 각 부위에 이식과 경식, 천, 지환, 대금구, 식리를 금으로 만들어 착장시켰다.

경주에 주로 만들어진 대형 무덤의 구조는 매우 특이하다.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으로 불리는 무덤의 축조에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다. 이처럼 큰 무덤을 만드는 것은 신라의 성장과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무덤의 크기나 부장품의 화려함만으로 왕의 지위를 강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주 시가지에 분포하는 대형분의 축조에는 매우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인데 경주 시내의 그 많은 무덤, 특히 현재 봉분이 모두 없어졌으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수 천기 이상의 고분을 만드는



도2.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 수장층 묘역 가운데 하나인 창녕 교동고분군 전경(신라사대계 자료집3권, 198쪽)

데는 천문학적인 인력과 재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원은 모두 경주 주변이나 지방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충당하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 유력자를 우대하여 그들을 매개로 지방 지배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각 지방에는 경주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던 현지세력가가 경주에 버금가는 큰 무덤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부산의 복천동고분군, 양산의 북정리고분군, 경산의 임당고분군, 대구의 달성고분군, 창녕의 교동고분군, 성주의 성산동고분군, 의성 금성산고분군, 영주 읍내리고분군 등이 이러한 예이다. 이 고분군의 매장시설은 일부 적석목곽분도 있지만, 대부분 수혈식석곽묘(豎穴式石槨墓)이다. 그 속에서는 경주와 동일한 장신구류와 금속제품이 출토되는데, 경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욱 화려하고 많은 유물이 출토된다.

## 2. 신라양식 물품의 제작과 공유

신라양식 물품 가운데는 금공품이 대표적이다. 금공품은 신라사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고 주변의 고구려, 백제, 신라, 대가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하였으며, 각기 특색 있는 도안과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보면 기본적으로 각국별로 제작공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금공품이 한 지역에서 제작된 것인지 혹은 각지에서 다원적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필자는 신라의 금공품은 기본적으로는 경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제작이 용이한 물품은 지방에서도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창녕 등 일부 지방 세력은 비록 기술수준은 경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체 공방을 가지고 일부 물품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3. 중앙과 지방의 관 비교(좌: 경주 천마총 금관, 우: 양산 금조총 금동관)

마립간기 신라의 금공품은 중앙의 왕족, 귀족, 그리고 지방의 수장묘역에서 출토되는데 물품의 재질이나 수준, 수량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왕경의 왕릉급 대형분에서는 관·이식·경홍식·대금구·천·지환·식리·대도가 모두 출토된다. 주목되는 것은 피장자의 머리장식이다.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금령총, 천마총, 호우총, 은령총의 피장자는 모두 대관(帶冠)을 쓰고 매장되었다. 이중 출토상황이 명확한 황남대총 북분과 금령총, 천마총의 경우 금관이 얼굴전체를 덮고 있다.

지방은 경주에 비하여 정형화된 모습이 덜 확인된다. 양산 부부총의 남성만이 관(대관과 모관)·이식·경홍식·대금구·천·지환·식리·대도를 유해부에 부장하고 있고 그 외는 부분적으로 부장한 예가 많다. 지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제 장신구는 역시 관이었던 것 같다. 관을 비롯한 금속장식품을 세트로 부장하는 장례풍습은 신라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며,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시작되어 6세기 중엽경 소멸되는 것 같다. 지방의 무덤에서 금속장식품이 보이는 것은 5세기 전반경이라고 생각되며 수량이 증가되면서 관, 이식, 대금구, 식리, 장식대도의 전 세트가 부장되는 것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이다.

현재까지 신라의 지방 가운데 경산, 대구, 의성, 창녕, 양산에서는 관, 이식, 대금구, 식리 등의 주요 장신구와 장식대도가 다수 출토되었고 성주, 안동, 강릉, 부산, 삼척, 상주, 청원에서는 소량 출토되었다. 조사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이러한 차이는 신라 중앙에서 각 지역에 대한 관심도, 다른 한편으로 각 지역이 지닌 중요도와 관련될 것 같다. 신라의 중앙에서는 경산, 대구, 의성, 창녕, 양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현지 지배층에게 다양하고도 많은 금공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기별 분포양상을 검토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포지역이 조금씩 변화하는



도4. 지방 출토 경주산 금공품 가운데 가장 정교한 사례(양산 금조총 태환이식)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경산·의성·강릉→대구·성주·안동→양산·창녕·영주→청원 순으로 외연이 조금씩 넓어진다. 이는 신라 역역의 확장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배거점의 변화나 관심도의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5세기 후반에는 경산·의성·대구·양산·창녕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특히 6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그중에서도 양산과 창녕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 같다.

경주를 분포의 중심에 놓고 분포지역을 몇 개의 군으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다. A군은 경주-포항-(영해-)삼척-강릉을 잇는 선이다. 경주에서 안강을 거쳐 포항으로 나가는 길에 내수리고분군이 있고 동해안의 경우 영덕 괴시리, 삼척의 갈야산, 강릉의 초당동 고분군이 주요 고총군이다. B군은 경주-(영천-)의성-안동-영주를 잇는 선이다. A, B군은 고구려와 통하는 교통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강릉 초당동과 영주 읍내리고분군이 접경지대에 가까운 고분군이다. C군은 경주-경산-대구-선산-상주-청원을 잇는 선이다. 경산의 임당, 대구의 달서, 선산의 낙산동, 청원 미천리고분군이 주요한 고분군이다. 여기서 경산-대구는 비단 백제 방어루트일 뿐만 아니라 낙동강 서안의 가야로 통하는, 또는 칠곡을 거쳐 의성 쪽으로도 통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된다. D군은 경주-(청도-)창녕으로 통하는 선이다. 창녕의 경우 낙동강에 접해 있고, 대가야 중심국의 하나인 다라(多羅)와 대안으로 마주보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 때문에 창녕의 경우 많은 양의 금공품이 부장되는 것 같다. E군은 경주-언양-양산으로 통하는 선이다. 양산은 창녕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된다. 낙동강을 경계로 김해와 마주하고 있으며, 밀양, 창녕 쪽으로 올라가는 낙동강의 수운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외에 왜구의 침입 등 해로를 통한 공격으로부터 왕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포항에 이르는 해안지대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인지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경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철기 등 각종 물품들이 다량 출토되어 있고 적석목곽분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인된다.

이 같은 금공품의 분포양상은 아마도 신라의 영역범위와 유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같은 시기 백제와 대가야의 금공품 분포양상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백제와

대가야도 양식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금공품이 일정한 분포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수량이나 정형성에서는 신라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신라, 백제, 대가야의 금공품 분포권은 각기 그 나라의 정치력이 미쳤던 범위였으며 영역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신라양식 물품 공유의 배경

신라양식 금공품이 부장 전용물품인지 아니면 일상용품이었는지 불명한 점이 있지만 복식의 부속구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복식의 일부분으로 볼 때 『중원고구려비』의 “賜麻錦之衣服 (중략) 敎諸位賜上下衣服”의 기록이 주목된다. 이 내용은 고구려 태자가 신라왕과 그 수종자에게 의복을 사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문에서 고구려는 중국왕조 특히 북위가 고구려에 하사했던 것처럼 신라의 지배층에게 의복을 사여하고 있다. 여기서의 의복은 일상복이 아니라 고구려의 관복으로 여겨진다. 신라도 고구려가 신라에 했던 것처럼 지역 수장에게 신속의 표지로 자신들의 복식과 동일한 복식을 사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복식의 구성품 가운데 무덤에 매장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동관, 금제 이식, 은제 대금구, 금동식리, 장식대도가 포함될 것이다. 다만 이 가운데 금동식리처럼 장송용품이 포함되는 바, 빈(殯)을 거쳐 매장의례를 수행할 때 전해졌는지 혹은 이식과 같은 종류는 생전에 하사한 것인지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신라는 5세기 전반에 고구려와 신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계가 신라 성장에 장애가 되자 신라는 고구려와의 신속관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나제동맹을 체결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변경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세력을 강하게 결속하고자 하였으며 고구려와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축성사업을 벌이고 지방민들을 동원하였다. 이 때 필요한 제반 물품 역시 각 지방에서 수취해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임무를 현지 수장에게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당시의 신라는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써 현지세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 같다.

지방 수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인정과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들은 중앙과 밀착됨으로써 이전 시기에 지녔던 독자성의 많은 부분은 점차 상실해갔지만 신라의 중앙이라는 보다 강한 배후세력을 등에 업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자 시도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러한 체제는 약 1세기가량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전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살펴진다. 즉, 단위지역 내에서 중심 세력 이외의 새로운 세력에게도 복식을 하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5세기대처럼 주로 앞 시기의 소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중심고분군에만 사여 또는 지원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주변고분군에도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 예로 경산과 대구지역을 들 수 있다. 대구의 경우 기존의 세력인 달성고분군 피장자들에

계 장식대도 및 장신구류를 하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명동고분군 피장자에게도 이식이나 대도를 사여하고 있다. 또한 경산의 경우 임당고분군 이외에 북사리고분군 피장자에게도 금속제 장신구와 장식대도를 사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5세기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와 아울러 대구 달성고분군, 창녕 교동고분군, 의성 금성산고분군처럼 비슷한 시기의 대형묘 중 동일 시기로 편년되는 복수의 묘에서 복식구성품이 출토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현지지배층 가운데 특정 유력자에게만 한정적으로 복식을 하사했다기보다는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복수의 지배층에게 복식을 하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이는 단위 지역 내에서 특정인에게 힘이 집중됨을 막기 위한 통제책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지방세력들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그들의 기반을 해체해야만 할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단계인 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각지에서 기존 대형고분군의 축조가 종료되고 새로이 주변에서 비교적 균등한 규모의 많은 고분군이 축조되는 모습은 이 시기에는 중앙에 의한 지방사회의 재정비가 완료되어 감을 반영해준다. 이러한 고고자료는 지증왕6년(505년)에 실시된 주군제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군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관의 파견과 지방에 대한 영역적 지배의 관철인 것으로 이해된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의 내적성장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자 지방 지배층의 자치적 기반을 규제 내지는 박탈하고 새로이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 자료집』(2~3권)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노태돈, 1988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1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보현, 1987 「수지형입화식관의 계통」 『영남고고학』4, 영남고고학회  
이희준, 2002 「4~5세기 신라고분 피장자의 복식품 착용정형」 『한국고고학보』 47, 한국고고학회  
전덕재, 1990 「신라 주군제의 성립배경 연구」 『한국사론』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최종규, 1983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부대사학』 7, 부산대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MEMO>

---

---

---

---

---

---

---

---

---

---

<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